

# 동상





## 20년 후 나의 하루



주이솔 | 부산 화정초등학교 1학년

나는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 주이현 농부가 화성에서 처음 감자를 수확했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기뻐서 눈물이 나왔다. ‘우리 이현이가 해냈구나!’ 나는 해낼 거라고 동생을 믿고 있었다. 화성에서 물이 발견된 이후 첫 농작물을 수확한 것이다. 화성에 가서 농사일을 시작한 이현이를 못 본 지 오래되어 정말 그립다. 나는 드론 택시를 불러놓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드론 택시가 베란다 앞 정차구역에서 도착을 알렸다. 나는 100층에 산다. 드론 택시를 탈 때마다 아찔하다. 택시를 타고 내 연구실로 왔다. 나는 새로운 공룡 이슬사우르스 뼈조각을 연구하고 있다. 내가 발견한 이슬사우르스는 육식 공룡이다. 내 이름을 붙여서 공룡의 이름을 지었다. 영광스럽다. 곧 사람들 앞에 이슬사우르스의 뼈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몰두해서 연구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바다 정거장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는 바다 기차 운전사이다. 바다 기차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그 사실이 나는 늘 놀랍다. 친구가 운전하는 바다 기차가 정거장에 정차했다. “이슬아! 왔니?” “네가 좋아하는 산호식당에 갈까?” 했다. 우리는 산호동에 내렸다. 산호동은 바다 마을이다. 이곳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바다 생명체와 더불어 산다. 바다는 자원도 많고 식량도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개발을 앞다투어 하고 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는 산호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산호식당은 거북이랑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다.

“이런 점심은 우리 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내가 말했다. “오늘 유치원생들이 전학을 왔어. 내일은 또 학교에서 소풍을 온다는군!” “여긴 아이들한테 핫플레이스구나!” “하하하!” 우린 함께 웃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는 정거장으로 나와 바다 기차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나의 엄마가 시간을 맞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차를 세웠다. 나는 트렁크에 있는 물통을 꺼내서 연료통에 물을 채웠다. 엄마의 물자동차는 느리지만 환경오염을 안 일으키고 연료를 구하기도 쉽다. “술이야, 오늘 우리 단체에서 나무를 만 그루나 심고 왔어! 그 전에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심는다고 허리가 아프지만 끝내고 나니 정말 뿌듯하구나.” 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엄마가 정말 멋있어 보였다. “훌륭해요! 나는 항상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 휴가는 화성으로 가요. 오늘 뉴스에서 동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이 더욱 그리워요.”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오전에 이현이와 영상 통화했어. 이현이가 감자를

보여줬어.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났어.” 엄마는 또 눈물이 나왔다. “이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와 대화하면서 가는 길이 즐겁다.